

이제는 한일전... 제대로 쏟아내기 위한 지령 '일단 채워라'

내일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3차전 일본전

벤투 "일본 비해 휴식 불리... 투지 발휘해 우승으로 마무리"

중국과의 동아시아컵 2차전이 끝난 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일본은 상당히 좋은 팀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많다. 또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일본 A팀과 U-23대표팀 감독을 겸하고 있어 선수 파악이 용이하다. 아무래도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최종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제 모든 초점은 숙명의 한일전에 맞춰지고 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5일 오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에서 김민재의 헤딩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1차전에서 홍콩을 2-0으로 꺾은 한국은 오는 18일 일본과의 최종 3차전 결과에 따라 대회 3연패를 달성할 수 있다.

예상대로 판이 갈렸다. 동아시아컵은 참가하는 4개 팀이 모두

한 번씩 맞붙는 리그전 형태의 대회였으나 한일전 승자가 우승팀이 되는 배경이 되면서 마치 토너먼트 대회의 결승전 같은 모양새가 됐다. 언제 어느 때고 일본전은 중요하지만 더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벤투 감독은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표팀은 중국전 이튿날인 16일 오전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가벼운 훈련을 진행해 컨디션을 조절했다. 결승골의 주인공 김민재를 비롯해 황인범, 나상호, 김진수, 조현우 등 중국전에 선발로 나선 선수들은 운동화를 신은 채 가볍게 경기장을 돌다가 일찌감치 숙소로 들어갔다.

대표팀 관계자는 "숙소에서 냉수욕으로 근육을 풀어주며 회복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를 비롯해 대표팀은 모든 포커스를 에너지 충전에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벤투 감독은 중국전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스케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번 대회를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후 사흘만 쉬고 최종전에 나선다"는 말로 체력적인 손해가 있음을 괴렷했다.

이어 "시즌이 끝난 뒤라 선수들의 휴식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럴 때 하루 차이도 유불리가 상당히 크다"는 뜻을 전했다. 뒤 이어 "물론 개인적인 견해다. 불리한 면이 있으나 투지를 발휘해 반드시 우승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덧붙였으나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의 체력이 걱정될 상황이다.

한일전은, 그 어느 경기보다 에너지 소모가 큰 경기다. 정신력도 체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발휘되지 못하는 법. 때문에 일단 충분히 잘 쉬면서 제대로 쏟아내기 위한 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15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남자부 2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동아시아컵 최초로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쉬는 것이 목표다. 선수들 모두 시즌이 끝나자마자 팀에 합류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추운 날씨에 국가대항전을 치르는 것은 밖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다"면서 "잘 회

복해 일본전에 최대한 쏟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

이세돌, AI '한돌'과 '치수고치기' 은퇴대국

내일부터 3경기 열려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36)이 바둑 인공지능(AI) '한돌'과 마지막 대결을 치른다.

이세돌의 은퇴대국인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이 오는 18일부터 3경기로 열린다.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1, 2국은 서울 바디프랜드 본사에서 진행되고 마지막 3국은 21일 이세돌의 고향인 전남 신안에서 펼쳐진다.

1999년 프로에 데뷔한 이세돌은 11월19일 한국기원에 돌연 사직서를 내고 24년 4개월간의 현역 기사 활동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세돌은 현역 시절 세계대회 우승 18회, 국내대회 우승 32회 등

모두 50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동안 쌓여 담은 상금만 98억원(한국기원 공식 상금집계)에 달한다.

지난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를 상대로 인류 최초 1승(4패)을 기록한 이세돌은 은퇴대국에서 또 한 번 인공지능을 만나 현역의 마지막을 장식하려 한다.

이세돌과 한돌이 맞붙는 대국의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 초읽기 1분 3초다. 대국 방식은 3경기 치수고치기로 진행된다.

치수고치기란 두 대국자 사이의 기력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두는 바둑이다. 치수는 상수와 하수의 실력 차이를 나타내는 돌의 개수를 뜻하는데, 하수가 바둑을 두기 전에 판에 미리 깔아놓는 돌의 수를 치수라 부른다.



이세돌은 2016년 알파고와 대국 당시 호선(맞바둑)으로 대결했으나 이번 한돌과의 대결에서는 이세돌이 흑을 잡고 두 점을 깔고 시작한다.

뉴스1

한일전 앞둔 벤투호 또 전력누수...문선민, 오른 무릎 부상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8번째 동아시아컵에 출전하고 있는 벤투호에 또 부상자가 발생했다. 홍콩과의 1차전에서 스트라이커 김승대가 골키퍼와 충돌해 대회를 마쳤고 이후 훈련 과정에서 우측 팔뚝 김문환도 부상으로 이탈한 것에 이어 테크니션 문선민도 무릎에 이상이 발생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5일 오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2차전에서 김민재의 헤딩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는 18일 열리는 일본과의 최종전, 숙명의 한일전 결과에 따라 한국의 동아시아컵 3연패 여부가 결정된다. 리그전

방식으로 치러지는 일정이지만 마치 토너먼트 대회 결승전 같은 스케줄이 됐다.

이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 대표팀에 약재가 찾아왔다.

벤투호는 중국전 이튿날인 16일 오전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회복훈련을 실시했다. 결승골 주인공 김민재를 비롯해 이정협, 나상호, 황인범 등 선발로 나선 선수들은 운동화를 신은 채 가볍게 몸을 풀다 일찌감치 숙소로 되돌아갔다.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은 정상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그 '회복조'에 문선민이 포함돼 있었다. 문선민은 중국전 후반 막바지에 교체로 투입해 출전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훈련조에서 빠졌다.



축구대표팀 공격수 문선민이 중국전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대표팀 관계자는 "문선민이 어제 경기 도중에 오른쪽 무릎 쪽에 충격을 받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부상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보호 차원에서 훈련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수준은 아니나 큰 부상은 아니지만 일본전이 이를 막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출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명품하는 행복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